

[의료서비스 비용과 병원경영학] “왜 같은 질병에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남건욱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자주 듣게 되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중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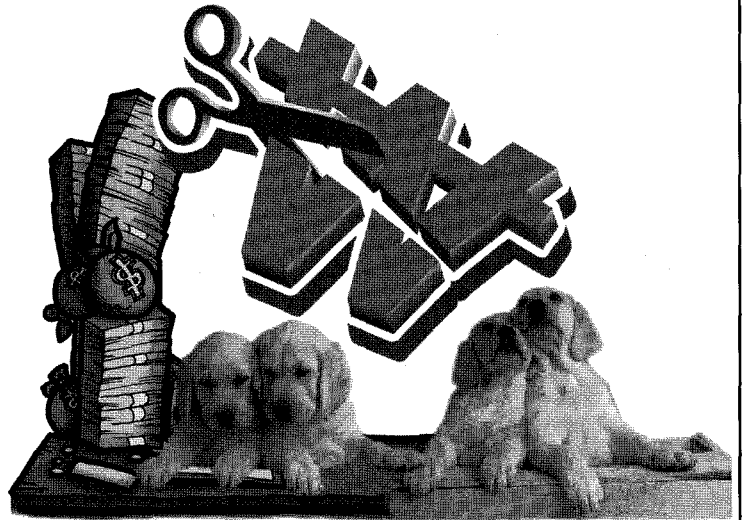
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신 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고객들에게 피력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같은 진료나 수술을 한 환자의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많게는 10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은 동물병원에서 환자(患者)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발생한 제반 비용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병원의 경우에도 국가체계의 보험실시가 되기 이전에는 동물병원처럼 가격에 차이가 있었지만 소위 DRG(Diagnosis Related Groups)기준으로 의료수가 체계가 결정된 이후, 현재는 이 도구를 바탕으로 병원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진료원가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DRG는 의사들의 지식과 의료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발되었는데, 병원의 전 환자를 병원 자원의 소모패턴이 유사한 환자군 즉, 진료방법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종류 및 양의 진료서비스를 소모하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각종 진단적 치료적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개발된 환자분류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병원의 경우 삼 쌍둥이 수술을 성공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거론하며 의료서비스 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으로 보고 육성하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지식산업으로 간주하는 수의진료권에 대한 계몽과 더불어 후속적인 관련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경영과학/산업공학 영역의 기법이 의로서비스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0년대의 이론적 모형과 해법의 개발이 주를 이루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영과학이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즉 병원경영학은 경영과학/산업공학 영역의 모든 기법들이 일반기업에서와 같이 동물병원 경영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영과학/산업공학의 기법들을 도입한 병원경영학의 활용의 예를 들자면

경제성분석, Payoff Table과 의사결정수 분석,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수송모형, 대기모형, PERT/CPM, 품질관리, 재고관리, 시뮬레이션, Six-Sigma, Re-engineering, Balance Score Card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경영과학회(INFORMS) 산하의 Health Application Section(HAS)과 산업공학회(IIIE)산하의 Society for Health System(SHS), Health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등이 의로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영과학 활용을 위한 학술 및 응용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단체로 알려져 있다. **대**  **수**